

NYPI

청소년 통계 브리프

Vol.21 2015. 0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김경준 선임연구위원 jun@nypi.re.kr

개요

- 조사목적**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의 개선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위하여 2006년부터 지표 체계를 개발하여 왔고, 2009년부터는 국가승인통계(제40201호)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아동·청소년 인권영역을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매년 조사하고 있음.
- 조사대상** ▶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 학생 10,484명(남자 5,477명, 여자 5,007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 초등학생 4~6학년 2,975명, 중학생 1~3학년 3,662명, 고등학생 1~3학년 3,847명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
- 조사기간** ▶ 2014년 6월 12일~7월 30일

■ 차별경험

- 최근 1년 동안 성별, 학업성적, 연령, 가정형편, 지역, 외모나 신체조건, 종교, 가족유형, 장애와 다문화가정 등 각각의 요인으로 인해서 차별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받은 차별이 30.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받은 차별(25.5%),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24.3%), 외모나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23.3%), 지역으로 인한 차별(5.4%), 종교로 인한 차별(3.4%), 가족유형으로 인한 차별(2.2%), 장애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1.8%),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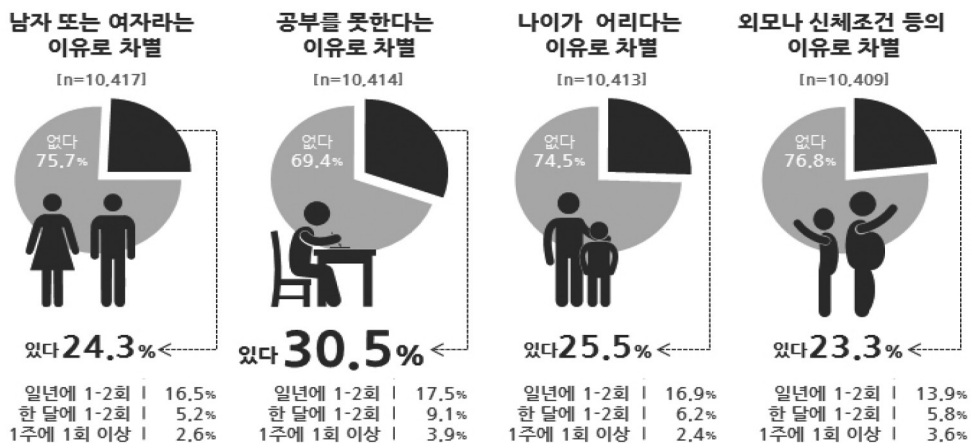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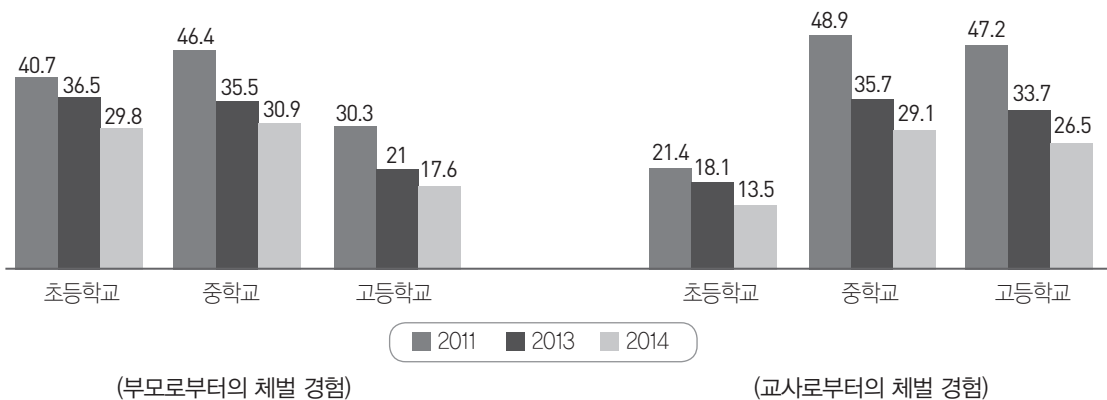


그림 1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 차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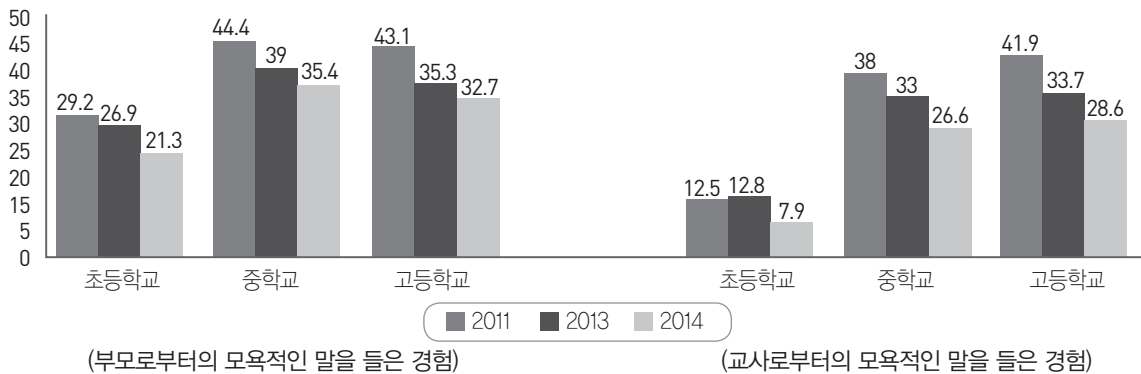
- 특히,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는 교급이 올라갈수록(‘초등학생’ 13.7%, ‘중학생’ 30.3%, ‘특성화고 학생’ 43.5%, ‘일반/특목/자율고 학생’ 44.0%), 학업성적이 낮을수록(‘상’ 16.1%, ‘중’ 30.3%, ‘하’ 47.9%),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상’ 24.2%, ‘중’ 32.1%, ‘하’ 44.8%)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 차별은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 있음.

■ 부모(보호자)와 교사의 아동·청소년 체벌 및 학대

- 부모(보호자)와 교사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체적 벌과 정서적 학대는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30%대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등과 관련성을 보이고 있음.
- 부모(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받은 경험은 초등학교의 경우에 2011년도에 40.7%에서, 2014년도에 29.8%로 감소하였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46.4%에서 2014년도에 30.9%로 감소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1년에 30.3%에서 2014년도에 17.6%로 감소하였음. 교사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받은 경험은 초등학교의 경우에 2011년도에 21.4%에서 2014년도에 13.5%로 감소하였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48.9%에서 2014년도에 29.1%로 감소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1년에 47.2%에서 2014년도에 26.5%로 감소하였음.



- 부모(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들은 경험은 초등학교의 경우에 2011년도에 29.2%에서 2014년도에 21.3%로 감소하였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44.4%에서 2014년도에 35.4%로 감소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1년에 43.1%에서 2014년도에 32.7%로 감소하였음.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들은 경험은 초등학교의 경우에 2011년도에 12.5%에서 2014년도에 7.9%로 감소하였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38.0%에서 2014년도에 26.6%로 감소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1년에 41.9%에서 2014년도에 28.6%로 감소하였음.



- 부모(보호자)의 체벌율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높았으나, 교사의 체벌율은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이, 그리고 성적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음. 부모(보호자)의 모욕적인 말(욕설)을 들은 경험은 중학생이 가장 많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교사의 모욕적인 말(욕설)을 들은 경험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청소년 방임 실태

- 최근 1년간 아동·청소년 방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밤늦게 홀로 집을 보게 하는 야간시간 방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 67.3%,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16.8%, ‘결석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9.3%,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8.1%,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2.0% 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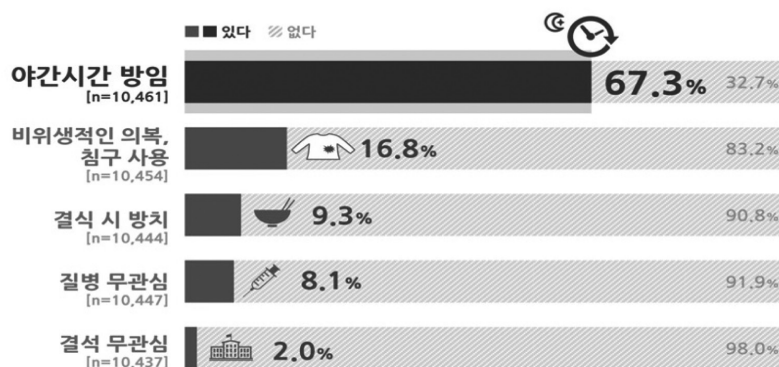


그림 2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 방임 경험

- 야간시간 방임과 위생적이지 않은 의류 및 침구사용의 경우에 전 연령에 걸쳐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야간시간방임은 2011년에 비해 2014년에 초등학생은 15.3%,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모두 17%가 증가하였으며, 모든 교급별로 청결하지 않은 의류나 침구사용에 대해서는 2011년에 비해 2014년에 약 2~3배 이상의 경험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외에 질병 발생 시 방치나 결식 및 결석 시 무관심의 경우는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질병발생 시 방임의 경우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2013년에 약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식 시 무관심의 경우는 점점 그 경험률이 줄어들어 고등학생의 경우는 2011년의 20.5%에서 2014년에 11.8%로 거의 절반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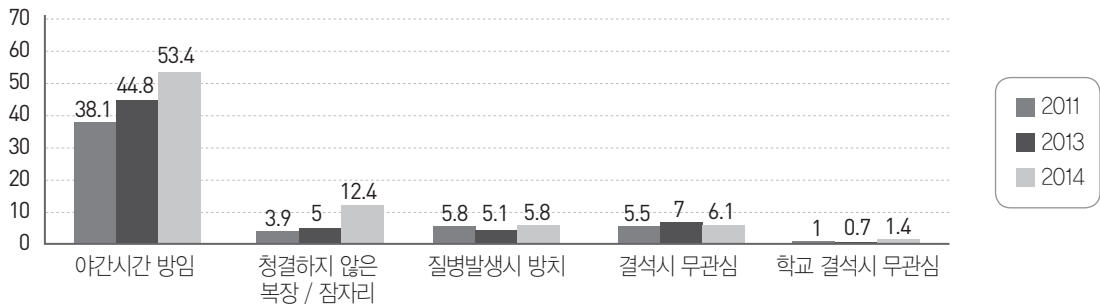


그림 3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빈도 3개년 추이(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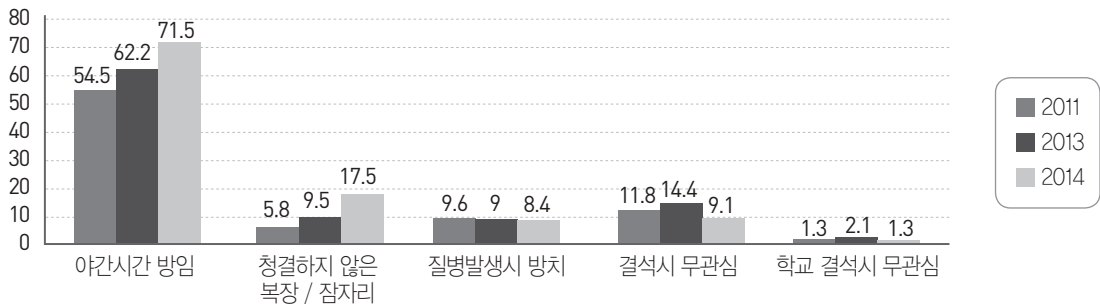


그림 4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빈도 3개년 추이(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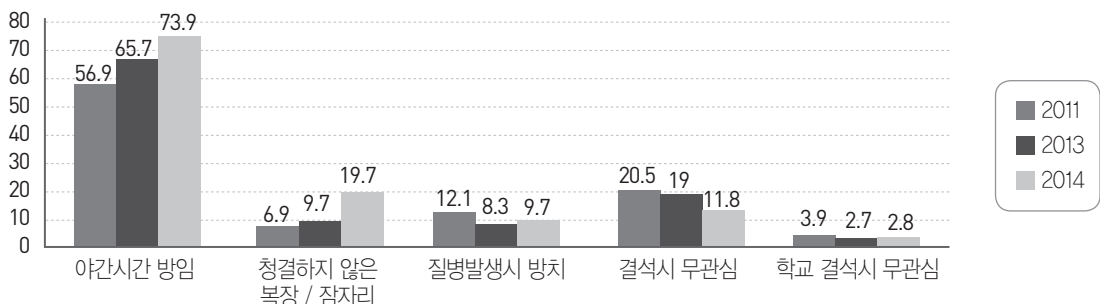


그림 5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빈도 3개년 추이(고등학생)

■ 아동 · 청소년의 안전

-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아동 · 청소년의 안전 문제에 대한 아동 · 청소년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범죄, 교통사고, 음식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각각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약 10명 중 4명의 아동 ·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 교통사고나 범죄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89.1%(그런 편이다 64.2%, 매우 그렇다 24.9%)의 아동 · 청소년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범죄에 대해서는 61.3%(그런 편이다 47.1%, 매우 그렇다 14.2%),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56.4%(그런 편이다 44.9%, 매우 그렇다 11.5%), 그리고 음식물에 대해서는 72.0%(그런 편이다 59.3%, 매우 그렇다 12.7%)의 아동 · 청소년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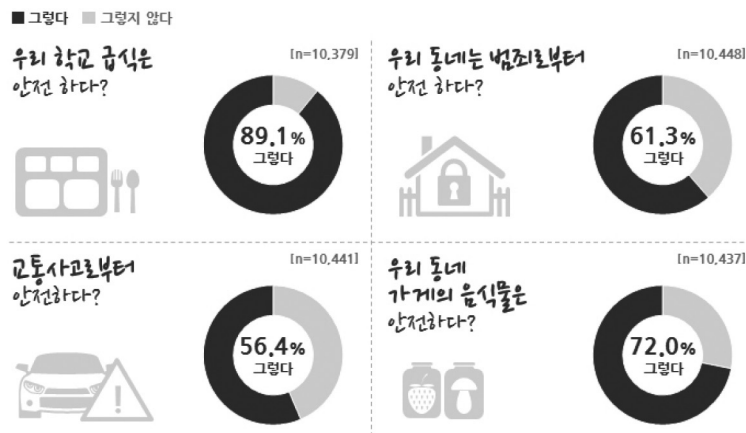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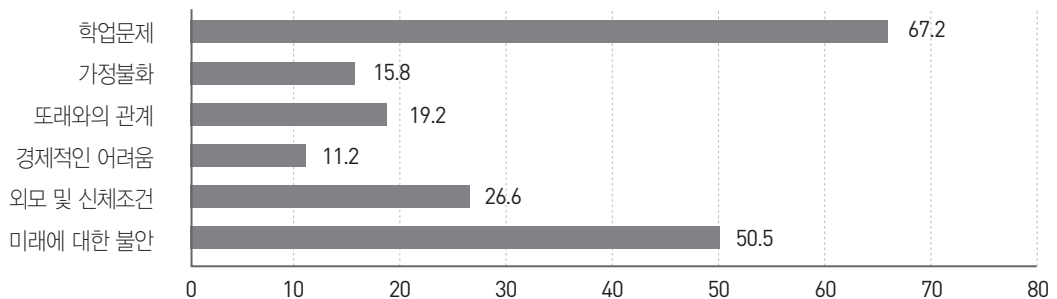


그림 6 2014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 인식

■ 아동 · 청소년의 스트레스

- 학업문제, 미래 진로, 외모 및 신체조건, 또래관계, 가정불화 등 원인별로 스트레스의 인지율을 조사한 결과는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율 : ‘학업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로 인한 스트레스’가 67.2%, 그 다음으로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50.5%, ‘외모 및 신체조건’ 26.6%, ‘또래와의 관계’ 19.2%, ‘가정불화’ 15.8%, ‘경제적인 어려움’ 11.2% 등의 순으로 학업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초 · 중 · 고 학생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음.

- 스트레스는 성별, 교급별,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별로 차이를 보였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전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었고, 학교유형 중에서는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이 학업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초등학생' 43.1%, '중학생' 70.2%, '특성화고 학생' 66.5%, '일반/특목/자율고 학생' 86.6%). 특성화고 학생들은 가정불화와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 및 신체조건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른 학교 유형보다 더 높았음.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모든 유형의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런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비율

그림 7 원인별 스트레스 정도

-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과의 관계 :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우울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스트레스 유형과 관계없이 낮은 자존감과 높은 우울감을 보였음.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경우는 학업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스트레스가 없다고 한 집단이었으며, 마찬가지로 우울감이 가장 낮은 집단 역시 학업문제가 미래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이었음.

■ 아동 · 청소년 자살 생각

- 아동 · 청소년 조사응답자의 30.0%가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것으로 나타났음.
-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70.0%, '가끔 생각한다'가 26.6%, '자주 생각한다'가 3.4%로 전체 응답자의 30.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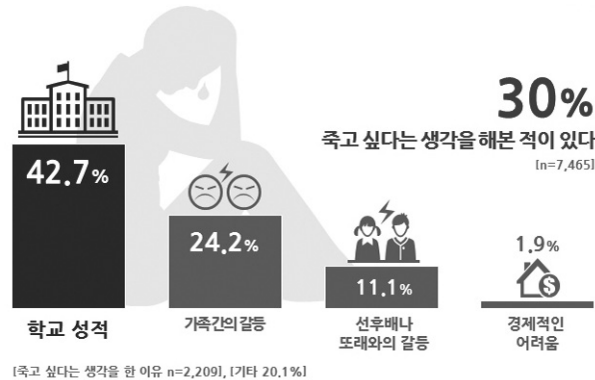


그림 8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정도

- 남자(23.9%)보다는 여자청소년(36.7%)이,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 학생(29.4%)보다는 한부모가정 학생(37.7%)이나 조손가정 학생(40.1%)이 보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학교성적이 4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족 간의 갈등(24.2%), 기타이유(20.1%),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11.1%)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학업부담은 스트레스와 행복,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 있음.
-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 : 스트레스 유형에 따라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여부를 살펴본 결과, 모든 스트레스 유형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의 평균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음.